



## 농림수산식품부

### ▶▶ 우리나라 고병원성 A1 청정국 지위회복 선언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1(H5N1형, 53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되었고, 추가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중앙역학조사위원회와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A1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매몰처분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5월 23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고, A1 상시예찰(임상·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1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음을 OIE에 통보하고, A1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A1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그간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A1 재발방지대책을 조만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1 검출된 후 인근 농가에서 A1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철새가 이동하는 봄·가을 등 취약·위험시기에 신속한 A1 위기경보 발령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고, 야생조류 A1 검사건수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금번 고병원성 A1 확산의 또다른 요인으로 추정되는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환경부)와 협의하여 급여 전 남은 음식물의

열처리 준수여부 합동점검 실시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A1(H5N1형)에 대하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한국과 일본 등의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 민간합동 중앙역학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 야생조류와 농장과의 완전 격리 및 농장 출입자 소독 관리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 ▶▶ 추석 성수품 공급대책 상황실 확대 운영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구매가 시작되는 8월 29일부터 추석 성수품 공급대책 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수품 공급대책 상황실은 지난 8월 22일부터 기관별로 분산하여 운영해 왔으나, 성수품 집중 구매시기를 앞두고 효율적인 물량공급을 유도하고 물가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참여기관을 7개로 확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합동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 상황실에서는 ▲ 성수품의 도매시장 일일 반입 및 가격동향, ▲ 15개 품목별 공급계획 대비 공급실적, ▲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운영상황, ▲ 성수품의 원산지 위반 여부 등 점검조치 실적, ▲ 과실류 종합세트 및 조생사과 수매공급실적, ▲ 비축 농수산물 방출상황 등 추석 가격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등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과천 경마장의 바로마켓 운영도 8월 29일 주간부터 종전의 주 2회(수, 목)에서 주 3회(화, 수, 목)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 2010년 농림업 생산액 43조 5,233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간 생산량과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2010년 농림업생산액이 43조 5,23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의 42조 9,951억원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서, 농업 부문은 41조 6,774억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했고, 임업 부문은 1조 8,459억원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2010년 농림업 부류별 생산액을 보면, 축산업 생산액의 경우 17조 4,714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사육두수 증가 및 축산물 생산량 증가, 가격호조로 생산액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농림업 부류별 생산액 비중을 보면 축산업(40.2%), 채소(19.2%), 식량작물(18.4%), 과실(8.2%), 특약용·화훼 기타(9.8%), 임업(4.2%) 순으로, 축산이 전체의 40.2%로서 처음으로 40%를 넘은 반면, 식량작물은 2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채소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생산액 순위는 쌀(미곡), 돼지, 한우, 닭, 우유 순이며, 이들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47.2%에 해당한다.

또한 계란, 오리, 딸기, 인삼, 감귤까지 포함한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액은 전체의 60.0%이며, 이들 중 축산업 부문이 6개(2~7위)를 차지하고 있다.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 개정 공포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시행(2011. 10. 22)을 앞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한·미 FTA 대책(2007. 11) 발표 내용에 따라 개선 보완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의 대상품목 선정방식을 종전 사전지정 방식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입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칠레 FTA 당시 사전지정 방식으로 인해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복숭아에 대한 폐업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를 감안,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을 기존의 순수입(소득·자 가노력비) 방식에서 순수익(순수입 - 토지자본용역비)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축산업의 경우 출하두수 기준으로 폐업지원금 산정할 계획이다.

과도한 폐업신청을 막고, 타 용도에 활용될 수 있는 토지자본에 대해 보상을 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철거폐기 면적이 아닌 출하두수 기준으로 폐업지원금 산출 방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는 폐업지원금을 철거·폐기양도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업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고 한·칠레 FTA 당시 실제 사례가 없었던 '양도'의 경우를 지급기준에서 제외했다.

2008년 말에 시행이 끝난 폐업지원금의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EU FTA 발효 일로부터 5년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준 수입량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 제1대 박용호 본부장 취임



신임 박용호 제1대 농림수산물 검역검사본부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 소재 본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직무에 들어갔다.

기존 3개 농축수산물 검역검사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한 검역검사본부의 초대 기관장으로 취임한 박 본부장은 출범 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을 기관 초석을 다지는 동력으로 승화시키자고 강조했다.

또한 박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통합출범의 취지를 살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검역검사본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검역검사본부 출범은 국경검역·방역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축수산물 물가불안·가축 질병 발생 및 FTA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등 점증하는 정책수요에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역·HP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로 해외 질병유입을 방지하고, '농장·어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농축수산물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행정, 창의적인 마인드와 우수한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검사본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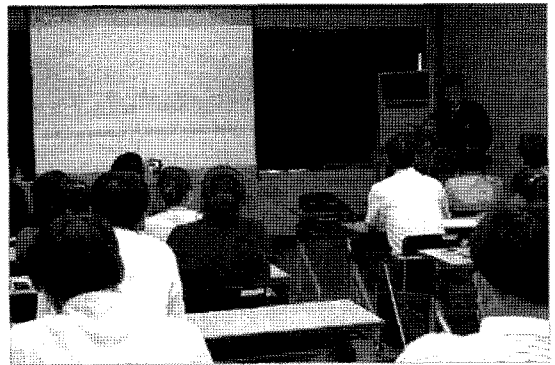
박 본부장은 평소 '합리성과 소신'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자타가 인정하는 농축산식품 전문가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한림원 주관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비과학적인

루머에 적극 대처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아울러 대학에서 낙농산업과 항생제 내성분야를 포함하여 수의축산에 관련된 연구를 해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 IDF 한국낙농대상 및 우수학회에서 연구상을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실 및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식품과 축산분야 정부위원회, 연구사업 등에도 참여한 바 있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이다.

관련 업계는 박 본부장의 신념과 풍부한 학식을 바탕으로 검역검사본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가축 질병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 태국, 인수공통전염병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는 동·식물기술개발연구 분야의 국제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태국 동물위생연구소(NIAH;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Health) Dr. Vimol 소장 등 인수공통전염병 전문가 4명을 초청(8월 8일~12일, 5일간)하여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Dr. Vimol 소장은 태국 동물위생연구소의 주요 임무 및 역할에 관하여 소개했으며, Dr. Monaya(면역 과장)는 태국의 브루셀라병 발생현황 및 근절추진 대책, Dr. Pacharee(세균과장)는 살모넬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상황 및 방역 대책 등을 발표하고 국가간 방역대책 등에 대하여 상호 토론했다.

또한 상호간의 방역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브루셀라병, 결핵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BSE 및 광견병 등에 대한 상호 연구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며, 검역검사본부에서 개발한 진단키트 등에 대해 태국에서의 현장적용 평가를 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초청을 계기로 상호간의 교류 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향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연구원 교류, 국제공동연구 추진, 질병진단 기술 전수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 출범한 검역검사본부의 국제 위상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추석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은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수입유통량이 많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9월 11일(추석 전)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단계(8. 29~9.4)는 유통업체단속의 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 5~9. 11)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농식품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관원 특사경 1천100명과 명예감시원 2만천여명을 총동원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식품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확대,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및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자의 처벌강화 등 개정된 규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 농촌진흥청

### ▶ 구멍갈파래, 항생제 대체제로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여름철 해안의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구멍갈파래를 사료화하고, 가축



항생제 대체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구멍갈파래는 기후변화로 해안 표층수온이 상승해 이상 증식한 녹조식물로 그 동안 환경생태학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넙치와 전복 사료로 활용해 자원화 시키고 있으며, 구멍갈파래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연간 약 3,000톤 이상 자원화가 가능하며, 구멍갈파래 내 황산기를 함유한 다당체(多糖體)는 항바이러스, 면역증강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구멍갈파래를 닭에게 급여한 결과, 혈액 내 항산화 활성을 증진시키며 병원성 물질에 대한 염증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멍갈파래는 단순 건조한 분말형태보다 열수(熱水)로 추출한 추출물을 급여할 때 효능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멍갈파래 추출물을 닭 사료에 0.3% 첨가 급여 시, 닭의 혈액 내 항산화 활성을 7%p 이상 향상시키며,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최대 81%p까지 억제했다.

따라서 구멍갈파래를 닭 사료로 활용 시, 항산화 활성이 높아져 유해산소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기능과 병원성 물질에 대한 면역조절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작년 12월 구멍갈파래를 함유한 사료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으며, 현재 경제성 분석과 닭 사료 내 구멍갈파래의 최적 첨가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 ▶ '항생제' 없이 건강한 가축 기르기 방안 제시

농촌진흥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가 사용 금지됨에 따라 항생제 없이 건강하게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항생제 사용금지 동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사료용 항생제는 가축의 질병예방, 성장촉진과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남용에 의한 내성균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도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EU는 2006년 1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료용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미국, 일본, 캐나다도 항생제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항콕시듬제 9종을 제외한 사료첨가용 항생제를 전면 사용금지했다.

하지만 철저한 사양관리와 시설개선, 정확한 질병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가축을 기를 수 있다.

우선 건강한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돈이나 병아리를 육성해야 하며 축사 환경관리를 통해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해줘야 한다.

성장단계별 적절한 백신프로그램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외부로부터 전염병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축의 생산성 개선과 건강 증진, 면역 조절, 질병 예방 등을 위해 항생제 대체제를 이용해 건강하게 가축을 키운다.

항생제 대체제는 크게 유기산제와 식물추출물, 면역증강제, 생균제, 효소제 등의 종류가 있으며 소화관 건강과 성장개선에 도움이 된다.

항생제 대체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해 농장 상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유통기한이나 함유물질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해 권장량을 사용하고 제품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사용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의사 처방을 받아 치료용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포장지에 적혀있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되 반드시 휴약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서육석 과장은 “사료 내 항생제 사용을 금지한 것은 항생제 내성을 방지하고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학관연이 안전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국내 가축유전자원 보존으로 미래 국가자산 확보 노력

농촌진흥청은 최근 유전자원이 국가적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가축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주권 주장과 국익 확보를 위해, 희소품종과 특이형질 품종 등의 수집·보존과 재래가축 유전자원들의 다양성 확보와 특성평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축유전자원의 경우, 국제간 교류에 관한 표준 규범이 없어 향후 자원전쟁의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책임기관으로서, 2004년부터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가축의 품종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제연합(UN)산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전자원은 생축 6축종 21품종 3,500여두, 약성질병과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비해 가축유전자원의 동결정책, 수정란 등의 생식세포 3축종 13품종 6만여 점이다.

여기에는 희소품종인 흑우 17두, 칩소 12두, 재래돼지 5두, 특이형질 유전자원인 백색한우 8두, 미니한우 2두, 그리고 재래닭 6품종 17계통 2천여 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9개 도 축산연구기관과 2개 대학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5축종 11품종 26계통 17,000여 마리를 보존·관리하면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동물유전자원 현황보고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지구상에 서식하는 동물유전자원 품종 중 약 9%는 이미 멸종, 약 20%는 멸종위기 상태라고 밝혀 가축유전자원의 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최근 국제연합(UN)에서는 5월 22일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하고 2011~2020년을 ‘생물다양성 10년’으로 선포했으며, 2010년에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 의정서’ 채택으로 세계 각국은 이미 ‘생물자원의 전쟁시대’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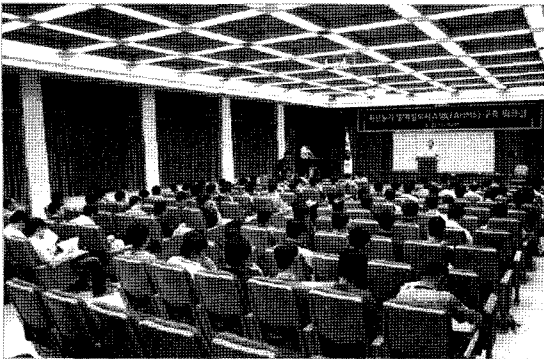
유전자원은 현재 인류에게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가치는 없지만 미래에 이용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말한다. 특히, 재래유전자원은 외래개량종에 비해 낮은 생산성 때문에 현재는 멸종위험 상태에 있지만 지역적 기후와 풍토에 잘 적응되어 있어 미래에 지역 특이질병 저항성 품종 육성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자원이다.

농촌진흥청은 보유하고 있던 가족유전자원을 이용, 멸종위기에 있는 재래돼지와 재래닭을 복원하고 실용축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팜스(FAMHS) 구축 워크숍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가축방역·축산물위생·수입축산물 검역검사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팜스(FAMHS, 축산농가 방역정보 시스템)를 재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 28일 이틀간 사업별 실무자 119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수산물식품연수원(수원시 권선구 소재)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방역본부는 2005년부터 '축산농가 방역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업 확장 및 가축방역정책의 변화에 따라 팜스를 재구축하기로 하고 금년 3월부터 24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여 20여회의 현장 방문의견 수렴 및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간 경과를 점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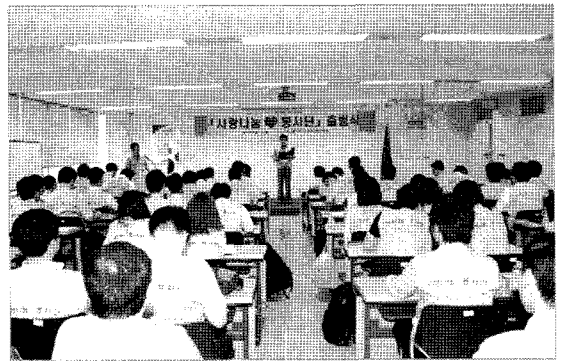
고 사업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워크숍은 경과보고, 시스템 공동화면시연에 이어 분임조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8개조로 운영된 분임조 토론은 결과도출을 위하여 자정을 넘겨가며 진행되어 팜스 재구축을 위한 소속직원의 의지를 가늠케 했다.

방역본부는 본 워크숍에서 총 49항목 203건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참가자의 높은 열의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과 함께 성공적 팜스구축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팜스 재구축은 2011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 '사랑나눔 봉사단' 출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8월 1일 기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랑나눔 봉사단' 출범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할 것을 선언했다.

기준원의 사랑나눔 봉사단은 본원(경기도 안양 소재)과 지원별(중부·영남·호남지원)봉사단으로

조직되어 관할 지역별로 활동하게 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발전하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의 모습을 구현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기준원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및 우리원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 국내 최초 축산물HACCP 지정 메추리농장 탄생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8월 8일 충청북도 영동소재의 정원농장을 제1호 HACCP 메추리농장으로 지정했다.

정원농장(대표 김정순)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에 위치한 24만수 규모의 산란용 메추리농장으로, 지난 6월 2일 발표된 비고시품목 유사 HACCP평가기준을 기준으로 국내 최초 축산물HACCP 지정 메추리 농장이 되었다.

정원농장은 이미 지난 2007년 자체 운영하는 알가공장이 HACCP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메추리 농장HACCP 지정을 통해 사육부터 가공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메추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 제4차 ‘찾아가는 축산물HACCP 무료기술상담’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8월 30일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어민회관에서 2011년도 제4차 ‘찾아가는 축산물HACCP 무료 기술상담’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남지역 축산물HACCP 지정 및 지정 희망업소(농장) 중 총 52개 업체 59명이 참가했으며, 축산물HACCP 도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HACCP 운영상의 각종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전문 심사관과의 1:1 기술상담을 진행했다.

내용으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방법 등 관련법령고시 개정사항, 업종별 시설 검토 사항, 기준서 및 관리일지 작성 요령, HACCP 지정 또는 연장 절차 등 HACCP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총체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이외에도 9월 1일부터 추진되는 TMR사료의 축산물HACCP 지정에 대한 상담도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영남지원은 이번 찾아가는 기술 상담을 통해 영남지역 업체와 농장이 HACCP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나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모두 해결하고, 나아가 ‘찾아가는 축산물HACCP 무료기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